

제목 : <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워크숍 >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오는 11일 14:00 지역노동시장 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워크숍 > 을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전화번호

- 정인수 선임연구위원: 785-1801
- 전병유 연구위원 : 785-5081
- 임상훈 연구위원 : 785-5082

1. 지역별 실업 이직분석결과: 위험도모형¹⁾에 의한 실업 및 취업기간은 모형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단순평균에 의한 기간보다 길어진다. 그 결과 실업기간은 8.8개월로부터 10.8개월로 2개월 늘어나고, 취업기간은 3.7년으로부터 13.1년으로 9.4년 늘어난다. 시사하는 바는, 실업으로부터 탈출 못하고 있는 잘려진 관측치라 하더라도 적어도 2개월후에는 탈출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분석에서도 단기간에 이탈하는 25% 때문에 단순평균에 의한 취업기간이 3.7년이지만 실제 평균 취업기간은 13년 이상으로 아주 길다.

2. 실업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지만 위험도 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실업기간은 역전되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2개월 이상 짧다. 서울의 실업률이 대구보다 높지만 실업기간은 서울이 1.5개월이상 짧게 나타난다.

<표 1> 지역별 실업기간 및 취업기간

(단위: 개월, 수)

	평균실업기간	표준오차	평균취업기간	표준오차
전국	10.8362	0.6465	157.729	3.95
수도권	9.2952	0.8431	152.748	5.50
비수도권	11.8642	0.8944	162.510	5.67
대도시	10.4633	0.7513	150.982	4.31
대도시이외	11.0567	1.0389	180.701	9.46
서울	8.6594	1.1841	151.132	7.86
부산	10.7526	1.0692	142	10.53
대구	10.1832	1.2884	102.541	8.83
광주	7.7273	2.4321	156.260	23.83
대전	10.250	2.2914	197.304	26.37
인천	8.0714	1.3606	141.140	13.22
울산	8.6875	1.1229	246.071	37.97
경기	9.4861	1.0567	159.465	9.43
충청	10.633	2.0134	191.946	22.31
전라	10.9524	2.0681	202.674	21.48
경상	6.9663	0.8219	162.866	12.1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1998-2001.

1)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였으며, 계량분석방법은 “잘려진 관측치(censored observations)”를 고려한 위험도 모형(hazard analysis)¹⁾이 사용되었다.

3. 실업탈출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의 제조업 출신, 실직 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았던 경우에 실업탈출 확률이 낮게 나타나므로 취약지역 제조업 출신에 대한 특화된 노동시장 정책 배려가 요구된다(<부표 1>).

비수도권, 여자의 경우 제조업출신 실업자의 탈출확률이 7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도시 이외의 남자의 경우, 실업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한단위 높아지면 18% 실업 탈출이 낮아지고, 제조업에 속했던 경우 57%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기간은 대도시와 대도시이외의 지역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대도시가 12.5년(150개월) 임에 비하여 대도시이외가 15년(180개월)로서 2.5년의 차이가 있다(<표 1>). 부산과 대구, 인천 등에서의와 같이 산업구조 변화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취업기간도 아주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²⁾(<표 2>, [부록 그림 1] 참조). 생산직, 서비스직, 상용근로자, 중소기업,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의 취업이탈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5. 지역간 노동이동³⁾의 패턴은 서로 아주 상이하다는 결과를 보인다(<부표 2>).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 퇴직 남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지역이동 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적고 임금도 낮은 대기업 퇴직자 계층이 미취업에 남아 있다(<표 3>).

6.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⁴⁾ 한 결과,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출신은 지역이동에 부정적이며 제조업, 생산직의 이동경향이 강하다.

농업직은 비록 관측치수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생산직보다 더 강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북과 전남의 농업부문 이동이 강하다. 전남의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80만원) 사무직의 이동도 강하다. 정책점 시사점은 경북·전남의 농업, 전남은 저임금 사무직 직업훈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2)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보면, 산업구조변화지수가 큰 부산 대구 인천이 광주 울산 대전 서울 등의 대도시 보다는 취업이탈확률이 높다. 이를 볼 때, 산업구조변화지수의 영향은 취업이탈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고용보험DB, 1995.7.~2002.1. 자료이용

4) 로짓분석은 재취업자의 지역이동(1)과 이동없음(0)을 종속변수로 하고 근로자의 개별특성과 산업 및 직종변수를 설명변수로 한다.

<표 2> 2001년 지역별 노동 및 산업관련 지수

(단위 :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제조업종 사자비율	서비스업 종사자비율	대기업 종사자비율	산업구조 변화지수 σ_t	어음 부도율	노조조직율
		2000	2001						
서울	61.6	4.8	4.5	18.36	73.62	21.59	2.62	0.26	11.6
부산	58.4	6.4	5.2	22.43	68.38	13.36	2.82	0.25	14.7
대구	58.8	4.6	4.5	24.64	65.22	11.85	2.42	0.36	11.5
인천	60.9	5.0	4.2	30.31	60.62	21.7	2.33	0.34	36.1
광주	55.9	5.6	4.5	12.43	72.21	21.96	1.98	0.26	8.3
대전	58.1	4.3	3.9	13.65	74.67	18.34	2.05	0.14	10.8
울산	59.7	3.6	2.9	38.63	51.07	44.84	2.45	0.13	-
경기	61.3	3.7	3.4	23.02	64.40	20.04	2.6	0.23	10.2
강원	57.7	2.5	2.4	8.81	61.25	10.1	2.74	0.17	10.8
충북	59.2	3.0	2.8	20.21	52.13	15.47	2.62	0.16	9.1
충남	62.9	2.3	2.3	14.83	45.48	18.14	2.48	0.20	-
전북	58.7	3.0	2.9	12.60	53.47	19.55	2.69	0.39	9.8
전남	64	3.0	2.7	8.95	48.99	15.47	2.62	0.28	-
경북	64.6	2.9	2.3	16.53	48.36	30.82	2.27	0.19	11.2
경남	60.7	3.3	3.4	23.05	54.70	24.44	2.54	0.43	-

주: 1. 산업구조변화지수

$$\sigma_t = [\sum_{i=1} (E_i / E) (\Delta \ln E_i - \Delta \ln E)^2]^{1/2}$$

산업구조변화지수는 Lilien measure임 (Lilien, JPE, 1982)

E_i : 산업 i의 취업자수

E : 산업전체 취업자수

$\Delta \ln E_i$: E_i 에 log를 취한 값의 2001년과 1997년의 차이

$\Delta \ln E$: E 에 log를 취한 값의 2001년과 1997년의 차이

2. 어음부도율은 금융위기시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함

3. 노조조직율은 노동부 보도자료, 「노동조합조직율」, 2002년 10월 18일자에서 나타난 2001년 지역별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전국조직율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것임. -로 나타난 것은 남북을 통합한 숫자임. 그리고 울산은 경남북에 통합되어 계산되어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2001,

임금구조기초통계조사, 노동부, 2001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11, 공보 2002, 11-25호

<표 3> 설명변수 평균값 및 관측치수

변수	취업으로 지역이동 경우			취업후 지역이동 안한경우			퇴직후 미취업 경우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연령(년)	2,077,790	35.70	10.31	453,608	35.50	10.38	5,224,828	36.84	11.36
학력(년)	2,077,773	12.48	2.11	453,606	12.81	2.16	5,223,815	12.18	2.32
근속기간(월)	2,077,790	46.57	59.25	453,608	47.18	52.40	5,224,828	31.42	59.23
실업기간(월)	2,077,790	7.24	8.12	453,608	7.02	7.98	5,224,828	28.77	21.07
임금(만원)	2,077,790	970158.62	1175343.0	453,608	1014159.2	1422842.3	5,224,828	834196.4	1110438.9
	관측치수	비율		관측치수	비율		관측치수	비율	
남자	1402896	67.52		290620	64.07		3023457	57.87	
농업	15762	0.80		1855	0.43		37335	0.74	
제조업	804459	40.94		131447	30.40		2034630	40.28	
전기,가스	187322	9.53		26641	6.16		381129	7.54	
도소매,음식,숙박업	232265	11.82		63055	14.58		757200	14.99	
서비스	725267	36.91		209340	48.42		1841221	36.45	
생산직	1071088	51.55		180744	39.85		2052874	39.29	
사무·판매	640845	30.84		194215	42.82		1593354	30.50	
관리직	353845	17.03		76813	16.93		589922	11.29	
농업	12012	0.58		1836	0.40		988678	18.92	
대기업	405835	19.53		130992	28.86		1650948	31.6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1995.7.~2002.1.

7. 중점지역⁵⁾의 이동노동력의 인적 산업적 특징과 시사점: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동 후 임금수준도 더 낮아진다. 반면, 서울로의 이동은 저임금 제조업 생산직으로부터 서비스업 사무·판매직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수준은 더 높아진다(<표 4>).

따라서 제조업 생산직의 저임금 저기술 근로자에 대한 직업탐색의 효율화와 성장산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중점지역의 선정: 순유입의 유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광주-부산, 대구-서울, 울산-인천, 울산-서울, 인천-대구, 경남-경기의 6개 지역이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순유입된 비율을 각 지역의 노동력 수로 표준화한 후 전국평균에 대한 차이를 유의도 0.05에서 검정하였다.

<표 4> 지역이동 전후비교

	취업으로 지역이동		광주 → 부산		대구→서울	
임금	983985.88 (1011539.61)	970158 (1175343.0)	862912.9 (515360.0)	858058 (499918.0)	898791.9 (514938.4)	1045848 (12881 58)
농업	0.71	0.80	0.09	1.62	0.28	0.16
제조업	41.89	40.94	31.02	51.86	58.74	14.42
전기,가스	8.97	9.53	9.25	4.20	7.25	4.11
도소매,음식,숙박업	12.52	11.82	14.45	8.71	7.8	17.72
서비스	35.91	36.91	45.19	33.62	25.93	63.59
생산직	48.23	51.55	44.78	62.00	64.17	34.48
사무·판매	32.85	30.84	32.62	20.95	22.04	47.27
관리직	18.47	17.03	22.52	14.80	13.73	18.17
농업	0.45	0.58	0.08	2.25	0.05	0.08
대기업	21.24	19.53	28.21	19.83	11.04	17.73

	울산→인천		울산→서울		인천→대구		경남→경기	
임금	884533 (542355)	931121 (1089172)	960214 (485168)	1071826 (2114821)	942174 (545613)	873746.1 (499726.5)	917839 (703583)	961409.6 (1370194)
농업	0.94	0	0.21	0.24	0.26	0.10	0.77	0.21
제조업	52.93	70.47	48.62	17.58	62.57	61.17	61.31	58.67
전기,가스	6.36	5.27	13.65	4.45	3.68	7.09	6.5	6.97
도소매,음식,숙박업	6.02	5.06	6.57	18.50	7.15	4.94	7.43	6.31
서비스	33.74	19.21	30.95	59.24	26.34	26.70	23.98	27.84
생산직	67.32	63.65	66.6	32.80	54.08	64.70	65.27	60.61
사무·판매	19.43	25.55	18.27	49.51	31.37	22.58	21.05	24.67
관리직	13.09	10.80	15.12	17.68	14.49	12.69	13.51	14.67
농업	0.16	0	0.01	0.02	0.06	0.04	0.17	0.05
대기업	25.89	12.65	27.54	36.88	19.55	8.24	20.35	16.37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1995.7.~2002.1.

8. 중점지역 산업간이동 특징: <표 5>에 요약, <부표 3-8> 참조.

<표 5> 중점지역 산업간 이동

분석대상	이슈	정책과제
6개 지역 산업이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광업, 섬유, 신발산업은 수요가 줄어듦. 직업훈련의 부족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적음 · 화학, 기계퇴직자는 화학 기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이동 · 도소매, 건설은 산업내 이동 · 기타 사회 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은 건설업등 단순노무로의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광업, 섬유, 신발,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 노동력의 퇴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정책은 아주 세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의 저임금 유희노동력이 부산의 제조업, 저임금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업, 신발업 등 생산직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에 대한 적중 및 기술수준에 대한 판단이 연령, 성에 맞추어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산업특성과 노동수요, 근로자의 통근가능거리에 맞추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으로부터의 퇴직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섬유산업의 산업구조 변화가 강함을 시사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되,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주로 이동(운수업, 기타서비스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좀 더 지역특화된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노정됨.
울산에서 인천으로, 울산에서 서울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제조업 퇴직자가 주류를 이룸 (숙련생산직 근로자의 상향이동) 	
경남에서 경기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역의 퇴직자가 경기지역의 사양산업의 인력 부족직종으로 이동 	

9. 지역별 일자리창출 분석결과: 지역별로 순일자리창출 능력에서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외환위기 이전 고용성과가 좋았던 지역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성과가 좋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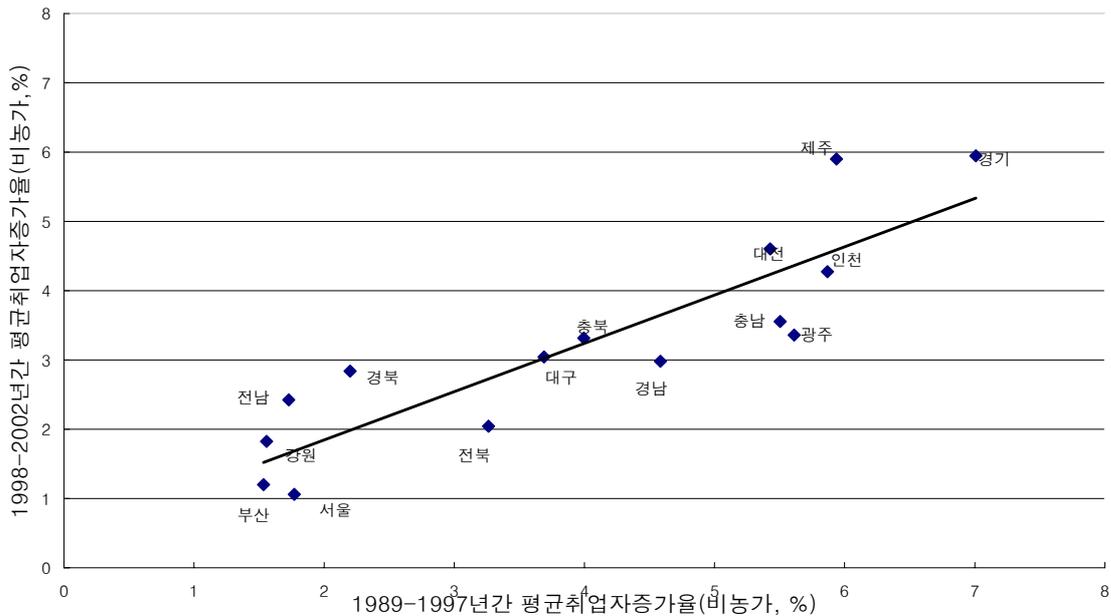
10. 지역간 순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는 일자리소멸에서의 차이보다는 일자리창출에서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일자리창출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체에서의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1.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고용성과(순일자리창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일자리창출률이 낮은 지역 또는 일자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불 때 초과 일자리변동률이 높다.

초과일자리변동률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체와 줄이는 사업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며 즉,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12.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실업, 이직, 노동이동, 일자리창출의 양상이 크게 다름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지역별 특이성에 근거한 노동시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3. 지역별 특이성에 근거한 OECD국가들의 지역노동시장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초보적 분권화”(영국), “정책수행의 재량권”(미국), “정책기획의 재량권”(캐나다,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국가별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는 각국의 과거, 문화, 제도 등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것이 이제 1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영국식의 “초보적형태의 탈중앙화”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고용안정(public employment service)의 경우 전국적으로 획일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경험도 새겨들만 하다.

14. 지역파트너십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사용자조직,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은 정부의 행정력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사간 협력,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효과적이다.

OECD는 지역파트너십에 의할 경우 지역노동시장이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이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지방정부로의 부분적 이양이라는 방식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낳는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 지역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연계와 벤치마킹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 정책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은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ECD가 추천하는 지역파트너십이 주요한 운영방식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파트너십에 근거한 연계사업의 공모, 선발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집행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성공모델의 확산 등 벤치마킹식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부표 1> Cox 모형 추정결과

변수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연령	0.2019	0.0080	0.1389	0.2332	0.1967	0.0735	0.1598	0.0032	0.0909	0.1848	0.2386	0.0091
연령제곱	-0.0025	0.0084	-0.0015	0.3106	-0.0026	0.0653	-0.0017	0.0057	-0.0009	0.2493	-0.0029	0.0054
학력	0.0078	0.8319	0.0241	0.6319	-0.0088	0.8840	0.0473	0.1598	0.0707	0.0989	-0.0354	0.5527
근속기간	0.0011	0.7063	-0.0010	0.7697	-0.0050	0.4866	-0.0028	0.2797	-0.0030	0.2847	-0.0062	0.2399
임금	-0.1063	0.2904	-0.0758	0.5389	-0.2953	0.2197	-0.0213	0.7349	-0.1092	0.1812	0.0521	0.6249
제조업	-0.2468	0.3929	-0.5514	0.1554	0.0349	0.9395	-0.1778	0.4159	0.2864	0.3229	-0.7009	0.0462
관측치수	114		61		53		184		89		95	

변수	대도시						대도시이외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연령	0.1427	0.0126	0.0886	0.2579	0.2070	0.0140	0.1843	0.0062	0.0538	0.5261	0.2515	0.0190
연령제곱	-0.0017	0.0125	-0.0010	0.2798	-0.0027	0.0081	-0.0020	0.0132	-0.0003	0.7289	-0.0030	0.0184
학력	0.0278	0.4428	0.0660	0.2208	-0.0690	0.2146	0.0437	0.2005	0.0587	0.1719	0.0043	0.9490
근속기간	-0.0036	0.2547	0.0000	0.9802	-0.0075	0.1641	-0.0009	0.6876	-0.0031	0.2173	-0.0007	0.9260
임금	-0.0336	0.6316	-0.0437	0.6195	-0.0170	0.8823	-0.0333	0.6806	-0.1865	0.0762	0.0558	0.6815
제조업	-0.0184	0.9378	0.4046	0.1846	-0.4014	0.1177	-0.3697	0.1524	-0.5779	0.0952	-0.2189	0.5881
관측치수	176		88		88		122		62		6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1998-2001.

<부표 2> 재취업시 지역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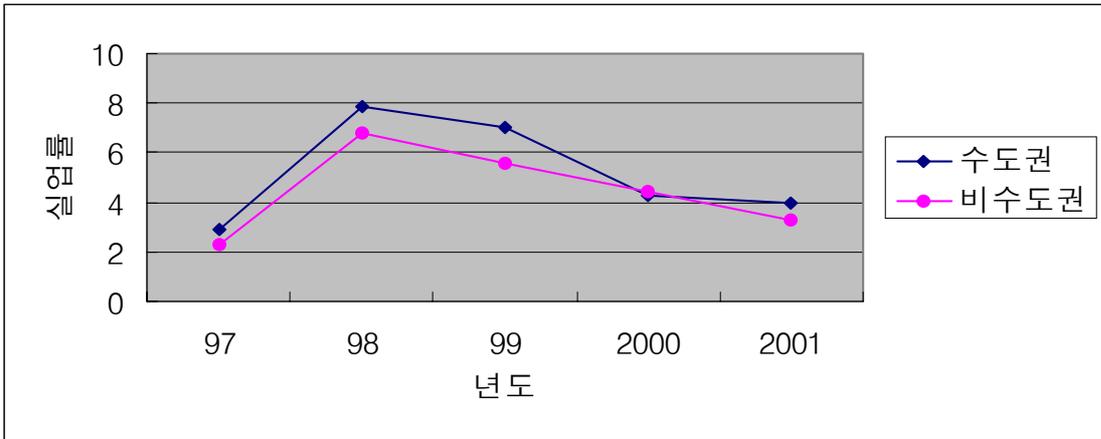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북	전남	충청	관측치 빈도수
서울	37.64	8.83	4.93	5.85	2.06	2.97	1.96	2.03	4.02	3.77	16.45	2.53	1.81	5.15	33.5
부산	29.2	9.74	5.73	4.47	2.99	2.51	2.44	1.60	4.71	3.73	19.87	2.26	2.38	8.39	8.9
대구	33.15	9.15	4.26	3.90	2.14	2.63	2.62	1.86	5.73	3.57	19.70	2.87	2.00	6.43	7.1
인천	34.87	7.22	11.35	6.06	1.21	3.19	1.41	1.59	4.19	3.56	17.05	2.15	1.51	4.63	5.4
광주	26.98	22.12	5.00	3.30	1.61	2.04	3.50	1.62	8.22	2.26	14.70	2.03	2.52	4.10	2.3
대전	38.78	6.25	5.45	5.40	2.30	2.23	1.95	1.69	4.23	3.41	16.59	2.12	4.60	5.01	2.4
울산	34.24	10.40	5.14	10.97	1.69	1.70	1.83	2.01	4.25	4.95	12.88	2.48	3.24	4.22	2.4
강원	33.59	9.36	8.72	4.35	2.25	2.44	2.99	1.64	4.70	3.69	15.26	1.97	3.77	5.28	1.9
경남	29.71	7.40	11.80	3.75	2.14	2.09	2.18	1.58	3.45	3.06	23.17	2.05	1.94	5.70	4.3
경북	34.11	6.82	6.32	6.05	2.32	2.22	2.45	1.80	3.72	7.85	14.37	3.23	2.29	6.45	4.0
경기	32.09	9.03	7.20	4.80	2.90	2.39	3.43	2.33	4.57	4.18	17.87	2.26	1.84	5.12	17.3
전북	39.02	11.14	5.41	3.78	1.56	1.84	1.93	2.32	4.61	3.72	15.55	2.26	2.08	4.78	2.3
전남	32.64	9.13	7.20	5.34	5.64	2.46	2.51	2.51	4.49	4.17	13.96	3.13	1.91	4.91	2.0
충청	30.64	10.12	11.04	4.75	2.55	2.15	1.98	1.37	4.65	3.49	17.95	2.28	2.49	4.54	5.4
관측치빈도수	341	91	65	52	23	25	23	19	44	39	173	24	20	54	1000

주: Chi-Square Test 값 : 108915, 자유도:169, 유의수준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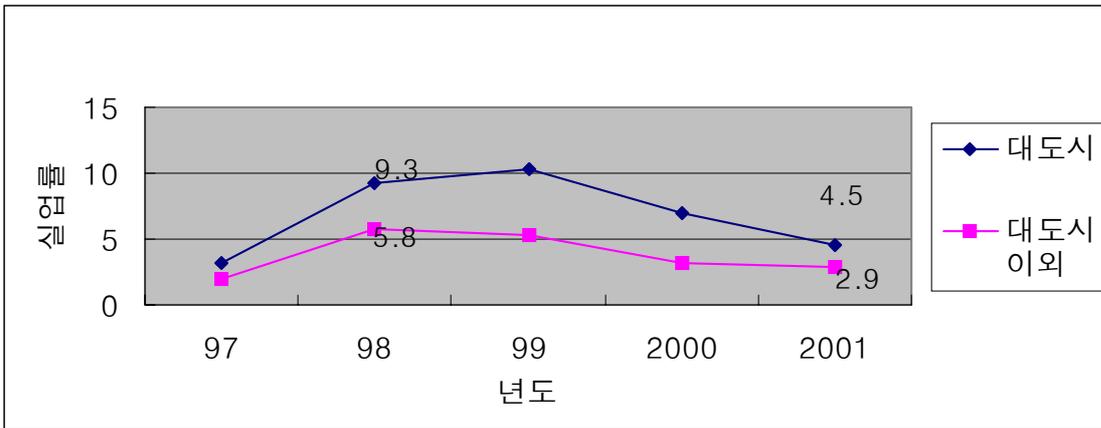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 7 - 2002. 1,

[부록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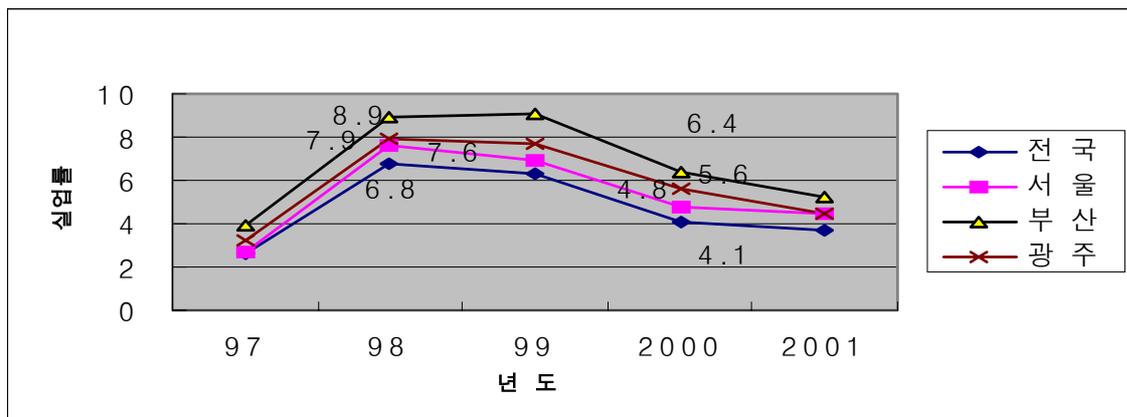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부록 그림 2] 대도시, 대도시이외 실업률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부록 그림 3] 지역별 실업률비교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